광주빛고을창업스테이션, 글로컬 창업허브 '발돋움'

광주역 창업밸리 핵심…작년말 준공 창업기업·투자사·지원기관 등 입주 펀드 조성·투자챌린지 등 실질 투자 "지역 창업자 든든한 조력자 역할"

호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광주역 창업밸리'의 핵심시설이자 초기창업 지원 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STA·G, 스테이지)'이 창업자들의 관심 속에 글로컬 혁신 창업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스테이지 입주 창업기업·지원기관을 모집한 결과, 창업기업(29곳)과 지원기관(1곳)이 32개실에 입주했다.

또 공유 오피스 공간 등에 투자사 30여 곳이 상시 머물고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파트너사가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모집에 참여했다.

오픈이노베이션과 글로벌 진출,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파트너사를 모집한 결과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창업 지원기관 14개사가 접수했다.

스테이지는 광주역 인근 부지에 총 공사비 350억원을 투입해 지상 5층(연면적 8950㎡) 규모로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스테이지는 'STARTUP STATION GWANGJU'의 약자로 '창업기업이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창업기업이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스테이지는 창업기업 전용 사무공간 41개실, 투자전문기관인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기관 전용 공간 5개실 등으로 구성됐다.

각 공간의 전용면적은 45~102㎡로 다양한 만큼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또 공유 오피스 지원공간, 대·소회의실, 다목적홀, 카페테리아, 오픈 라운지, 옥상정원 등 창업지원을 위한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스테이지는 단순 공간 제공을 넘어 IR(기업설명회), 밋업(Meetup), 글로벌 진출 등 체계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VC, AC 등 투자기관이 상주해 투자유치와 기업 간 교류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는 투자 활성화,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진출, 액셀러레이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용펀드를 조성, 운용하고 매월 투자 챌린지를 개최해 입주기업이 실질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보유한 파트너사 3개사를 선정,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공동 협업모델 발굴과 기술실증(PoC) 기회를 제공한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위해 글로벌 현지화 전문역량을 보유한 파트너사를 선정, 해외박람회 참여 지원과 글로벌 사업화·투자 연계 등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지역 창업자들의 스테이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창업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중점 추진 중인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사업'은 광주역 유휴부지에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개선해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7년까지 복합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One-Stop)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상아 기자

광주일가정양립본부, 직장맘·대디 고충해결단 운영

집안 정리·상담 등 무료 지원

광주시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을 운영한다.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지역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맘·대디(육아휴직자 포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을 운영, 분야별 맞춤 전문코칭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은 '정리코칭'과 '심리코칭'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상담·진행비는 전액 무료다.

'정리코칭'은 전문가가 나서 공간활용 방법을 지도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집안 정리를 함께 도와준다.

'심리코칭'은 색채심리 전문상담사가 직장 내 대인관계, 업무 스트레스, 가정불화 등 어려움을 상담한다.

신청은 담당자 이메일(leehr0428@korea.kr)로 접수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상아 기자

광주교통공사,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안전설비 강화

금남로4가역 등 교체 공사 추진

광주 도시철도가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대폭 교체·강화에 나서는 등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 환경 조성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광주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금남로4가역 에스컬레이터 2대에 대한 교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안전 점검 후 운행 재개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사에서는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를 전면 교체하고, 역주행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보강함으로써 운행 시 소음과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공사는 지난 2023년부터 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총 99대에 대한 개량·교체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현재까지 95대를 보수 완료했으며, 금남로4가역, 문화전당역 등 나머지 4대는 예산 반영을 통해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승강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전 점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지난 11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전남도, 올해 어촌·어항 개발에 1152억 투자

어촌 신활력 증진·시설 현대화 체험관광 활성화 등 11개 사업

전남도가 어촌·어항의 특화개발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총 1152억원을 투입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어촌신활력증진, 어항시설 현대화,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11개 사업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생활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진도 서망항 등 34개소에 837억원을 투입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플랫폼 구축, 어촌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소규모어항의 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어항시설 현대화 사업은 237억원을 투입해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필수 어항시설을 건설하고, 어항 내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과 퇴적토 준설 등을 통해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제공한다.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은 78억원을 투입해 섬과 갯벌, 바다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어촌관광 콘텐츠 개발과 어촌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대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어촌의 경제, 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관광기업 육성·창업 지원사업 추진

창업자 10명에 최대 2천만원

전남도는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관광 분야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2025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 참가자를 5월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 서비스, 관광 인프라, 관광·체험 콘텐츠 등 다양한 관광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19세부터 55세 이하 전남 거주자나 전입 예정자로,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나 창업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로서 관광업종 추가 창업 예정자다.

전체 신청자 중 30명을 선별해 관광 창업 전문 교육과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0명의 창업자에게 최대 2000만 원씩, 총 2억 원의 창업 실행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https://ijnto.or.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heejun@ijnto.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관광재단 기업육성팀(061-802-21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남도 관광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망 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관광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는 분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1개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했으며, 해당 기업은 누적 매출액 약 31억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 추진

새마을금고-청년 조직 협력·성장 마을·기업 모집 최대 4천만원 지원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재)함께일하는재단의 협업사업인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 대상 마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은 지역 새마을금고와 청년조직이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성장을 도모하는 동반성장 사업 모델 육성을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최종 선정된 10개 팀에 최대 4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우수 수행팀에 추가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가능 대상은 행정안전부 지정 청년마을이나 청년마을기업이며 오는 25일 오후 3시30분까지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 공식 누리집(https://mgse.co.kr/nanoom/notice)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30일까지 적격심사, 5월9일까지 서류심사로 진행된다. 이를 통과한 단체를 대상으로 5월23일까지 대면심사가 이뤄진다. 선정 결과는 5월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지역 새마을금고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 개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사회공헌 모델 개발 등 지원 유형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청년마을기업이란 청년이 주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이다. 회원 중 지역 주민을 5명 이상 포함하고, 청년회원 비율이 30~50%인 마을기업이다. 청년마을기업에는 젊고 유능한 청년이 참여해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역주민 비율 50% 이상, 자부담 비율 10% 이상 등 완화 적용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마을기업 지정 심사 및 각종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오지현 기자